

금호타이어, 하루만에 파업 철회

광주지법, 파업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 쟁위행위 전면금지 결정

총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노조가 8월16일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8월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열어 8월17일 오전 6시30분부터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8월16일 오전 6시30분 광주공장, 오전 7시 곡성공장에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는 법원이 회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박병철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가 전국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에 전면파업, 부분파업,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태업, 전기·전산·통신시설·유독물 보관장소 및 주요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8월13-15일 부분파업을 종료하고 회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5월 상여금 기준 150% 일시금 지급 등 14개의 협상안을 제시한 회사측과 교섭결렬을 선언해 8월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17>